

보도시점 2023. 5. 30.(화) 조간
2023. 5. 29(월) 12:00

배포 2023. 5. 29.(월) 08:00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 의료관광 아시아 중심 도약 추진

- 신 한국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 -
- 출입국절차 개선, 국가별 전략 등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5월 29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2022년 방한 외국인 환자는 24.8만 명으로 2021년 14.6만 명 대비 70.1%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전 2019년(49.7만 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이다.

이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0일(화)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묻고 격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 '22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의 78.2%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

** '09년~'22년까지 33개국, 총 8,992명의 외국인환자 유치

박민수 제2차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5월 29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022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4.8만 명으로 2021년 14.6만 명 대비 70.1%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전 2019년 (49.7만 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이다.

* ('09) 6만 → ('15) 30만 → ('19) 50만 → ('20) 12만 → ('21) 15만 → ('22) 25만

< 연도별 방한 관광객 및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



출처: 2009년~2022년 외국인환자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보건복지부), e-나라지표 (한국관광통계)

이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확대(27개 → 50개 이상)하고,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현 7개소) 및 상급종합병원(현 45개소)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다만, 유치환자의 불법체류율이 높은 기관은 당연 지정 대상에서 제외

또한, 외국인환자의 직계가족 유무, 질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둘째,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 마련을 통해 지역·진료과 편중을 완화한다.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와 함께 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23년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화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23년 인천, 대구, 제주, 부산, 광주, 충북)도 추진한다.

* (문체부) 의료(치료·미용·예방)·웰니스(회복·치유) 융복합 관광 자원 발굴, 기반 구축 및 마케팅으로 세계적 수준 웰니스·관광 목적지 조성 지원(30억 원)

** (복지부) 지역 의료·관광·산업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유치 모델 개발 및 기반 구축 지원(10억 원)

또한, 유치 주요국 대상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및 박람회 참석 등 국내·외 주요 행사를 적극 활용하고, K-컬처(K-pop, 드라마 등)를 연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여 한국 의료관광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주요 발생질환, 한국 의료 선호분야 등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성형·피부과와 함께,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유치기관 질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 등을 통해 유치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치기관 평가인증제(KAHF)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방한 외국인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 현행 「의료해외진출법」은 국내 의료인과 국외 의료인 간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 등 ‘원격 협진’만 가능하도록 규정

넷째,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홍보 및 나눔의료,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한 위상 강화를 통해 한국 의료의 국제 인지도를 제고한다.

재외공관, 한국 문화원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메디컬코리아 국제 컨퍼런스 등 국제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무상으로 초청하여 진료하는 나눔의료 사업 및 외국 의료인 대상 의료 연수를 확대하여 우수한 한국 의료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0일(화)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묻고 격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 '22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의 78.2%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 ('19년 80.1% → '20년 76.6% → '21년 72.9% → '22년 78.2%)

조선대학교병원은 2009년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지역 최초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이후 2022년까지 33개국, 총 8,992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으며, 2015년부터 외국 의료인 연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재까지 총 105명의 외국 의료인이 수료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역특화 유치 기반 강화 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하여 광주광역시 차별화된 유치모델 개발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최승현 (044-202-2980)
		담당자	사무관	권고운 (044-202-2987)
<외국인환자 유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최승현 (044-202-2980)
		담당자	사무관	김광수 (044-202-2982)
<한의학>	보건복지부 한의학산업과	책임자	과 장	최신광 (044-202-2590)
		담당자	사무관	박선희 (044-202-2593)
<출입국절차>	법무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2-2110-4070)
		담당자	사무관	이주호 (02-2110-4059)
<의료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책임자	과 장	이수원 (044-203-2881)
		담당자	사무관	허진웅 (044-203-2883)



- <붙임> 1.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요약)
 2.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인포그래픽
 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카드뉴스
 4.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5. 조선대병원 현장방문 개요

- <별첨> 1.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배 포본)

I. 추진배경

- (시장 현황)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20년 109조 원(820억 달러)에서 '25년 240조 원(1,820억 달러)으로 연평균 9.7% 성장 전망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 경쟁국들은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 추진 중
- (한국의료 경쟁력) 암·이식 등 선진 의료기술 대비, 상대적 낮은 가격, 첨단 의료장비·IT 기반 시스템 등 높은 국제 경쟁력 보유

II. 성과 및 한계

- (성과) 외국인환자는 '09년 6만 명→'19년 50만 명('22년, 누적 327만 명) 기록 후, '20년 코로나19로 급감하였으나 '21년부터 회복 중
 - * ('09) 6만 → ('15) 30만 → ('19) 50만 → ('20) 12만 → ('21) 15만 → ('22) 25만
 - (유치기관) '09년 1,547개→'22년 2,921개, (유치국) '09년 139개→'22년 192개
 - '19년 의료관광 지출액 약 3조 331억 원, 생산유발액 약 5조 5000억 원 수준
- (한계) 엄격한 출입국절차, 지역·진료과목 편중, 외생변수 민감, 낮은 한국의료 인지도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① (출입국절차) 재외공관 중심 비자 발급 절차,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심사 지연되는 등 비자 절차 어려움 호소
 - ② (지역·진료과 편중) 유치환자 78.2%('22년)가 수도권 집중, 진료과목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형·피부과에 대한 높은 의존도
 - * (내과통합) '19년 19.2% → '22년 22.3% / (성형·피부) '19년 29.7% → '22년 28.1%
 - ③ (외생변수 민감) 감염병, 국제 정치 등 외생변수에 따라 급격히 변화
 - * ▲(사드) '16년 36만 → '17년 32만, ▲(코로나) ('19) 50만 명 → ('20) 12만 명(76.5% 감소)
 - ④ (낮은 인지도) 한국의 경제규모, 문화(K-culture), 의료수준 등에 비해 한국의료 '메디컬코리아'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는 낮은 편

III. 세부 추진방안

전략 1

출입국 절차 개선

1-1.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 ☐ (지정 확대) 비자발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우수 유치기관 지정 확대('22년 27개 → '23년 50개 이상)
- ☐ (당연지정 신설)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현 7개소) 및 상급 종합병원(현 45개소)이 우수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 지정(심사면제)
* (現)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은 가점 대상(5점) → (後) 신청 시 당연 지정
- ☐ (인센티브 확대)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우수 유치기관 대상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최대 3인 동반) 혜택 부여

1-2. 비자 제한 완화 및 신속발급 지원

- ☐ (제한 완화) 일반 유치기관 동시 운용 가능한 비자 발급 쿼터 상향('22년 5건 → '23년 10건), 간병인·보호자 범위 확대, 제출서류 완화*
* 배우자·직계가족 유무, 병의 시급성 등 고려하여 형제·자매까지 가족 범위 확대,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 면제
- ☐ (신속발급 지원)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재외공관 부임자 대상 교육 및 시급을 요하는 환자의 의료관광비자 우선 처리방안 검토

전략 2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2-1. 의료·관광 연계 강화

- ☐ (지역 특화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 의료·관광 연계를 위해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지역 특화 유치모델 개발
- ☐ (고부가가치 환자 타게팅) 연관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VIP 환자, 장기체류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모델 발굴·홍보

- (홍보 마케팅 확대) 국내·외 주요 행사 및 K-Culture(K-pop, 드라마 등) 활용 홍보콘텐츠 발굴, 통합 채널 구축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2-2.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전략 마련

- (전략 수립) 주요 발생질환, 송출 주체(국가, 보험사, 유치업체 등), 한국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 전략 수립
 - (진료분야 다양화) 중점 진료분야로 한국이 잘하는 성형·피부과와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국 특유 한의약 확대 등 투트랙 전략 수립
 - 국가별 주요 사망원인 및 중증·복합성 질환을 중심으로 한국 의료기술·의료기관 등 홍보 및 해당 분야 환자 송출 협력 추진
 - 한의약 분야 유치 대상 국가 확대*, 유관부처·기관(관광공사,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 등)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 * '20~'21년 일본, 중국 중심에서 중동, CIS, 동남아 등으로 대상 확대 추진

전략 3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3-1. 유치기관 질 관리

- (인증 확대) 기존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인증유치기관 확대
 - * (의료해외진출법 '22.12) 유효기간 2년 → 4년, 조건부인증 1년, 교육·연수 혜택 도입
- (의료기관인증평가와 통합) 유치기관 평가인증제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인증원)와 통합 운영*
 - *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3-2.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

- (사전·사후관리) 방문 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원격협진) 확대
- (비대면진료) 외국인환자의 한국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 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4-1. 메디컬 코리아 홍보 확대

- ☐ (민관협력사업 지원) 재외공관, KOTRA 본사 및 무역관, 해외문화홍보원 및 한국문화원, 보건산업체 등과 협력사업 활성화
* '22년 총 12개국(14개 공관) 재외공관사업 확대 및 KOTRA·한국문화원 등과 연계 강화
- ☐ (국제행사 개최) '메디컬코리아 국제 컨퍼런스'를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컨퍼런스로 육성, G2G·B2B 협력 등을 통한 비즈니스 활성화
* '10년부터 의료관광 글로벌 컨퍼런스 운영, 23.3.23.~24. 개최
- ☐ (온라인 플랫폼 활용) 시·공간 제약 없이 한국 의료 콘텐츠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홍보 확대
* 메타버스 내 한국의료홍보관 개설 및 Medical Korea 통합홈페이지 구축 등
- ☐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외국인환자 종합 지원창구(2개소)를 통해 한국 의료정보 안내, 의료분쟁 지원, 불법브로커 상담 등 제공
* 인천공항, 서울관광공사 운영, 일반상담 → 방문 환자별 귀국 전·후 전주기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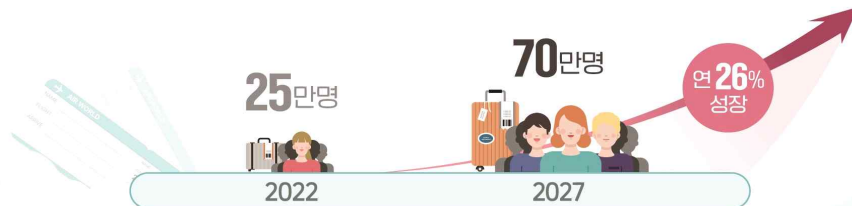
4-2. 한국 의료 위상 강화

- ☐ (나눔의료)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무상으로 진료하는 나눔의료 사업 확대 및 홍보 강화
* '11~'22년 28개국 총 418명, 국내외 유명인 등과 연계 스토리텔링
- ☐ (글로벌 의료연수 확대) 외국 의료인 대상 온·오프라인 연수프로그램 확대, 연수생 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 홍보 및 현지 유치 기반 마련
* (온라인 연수,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20~'22년 45개국 486명
(오프라인 연수, KMTP) '22년 중동 4개국 의사 238명, 치과의사 21명 수료(누적)

2023년 新 한국 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목 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 도약’



1 출입국 절차 개선

1-1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우수 유치기관 확대 (27개 → 50개 이상)
-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현 7개소), 상급종합병원(현 45개소) 신청 시 당연지정

1-2 비자 제한 완화 및 신속발급 지원

- 질병의 시급성 등 고려하여 간병인·보호자 범위 확대 (배우자·직계가족 → 형제·자매 포함)
-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의무 면제

2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2-1 의료·관광 연계 강화

-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23년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
- 지역별 특화된 외국인환자 유치 모델 개발 ('23년 인천, 대구, 제주, 부산, 광주, 충북)
- 국내·외 주요 행사 및 K-컬처를 활용한 홍보 확대

2-2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전략 마련

- 주요 질환 등 수요·공급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
-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학 분야 유치 등 진료분야 다양화

3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3-1 유치기관 질 관리

-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
-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 평가 시, 유치 의료기관 인증 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3-2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

-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 강화 (대상 국가 확대, 다년도 지원)
-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4 한국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4-1 메디컬 코리아 홍보 확대

- 재외공관, 한국문화원 등과 상시협의체 구성 및 민간협력사업 활성화
- 국제행사 개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홍보 확대
- 외국인환자 종합 지원창구 운영(메디컬 코리아 지원센터)

4-2 한국의료 위상 강화

- 나눔의료 사업 확대 및 홍보 강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초청하여 무상진료)
- 외국 의료인 대상 의료 연수 프로그램 확대

보건복지부 2023. 5. 29 제작

**신 한류스타 K-의료!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5.29.)

1/6

보건복지부 2023. 5. 29 제작

**외국인환자의
편리한 비자 발급을 위해
출입국 절차를 개선합니다**

- 온라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 확대 (27개 → 50개 이상)
-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과 상급종합병원 우수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 * 다만, 유치환자의 불법체류율이 높은 기관은 당연지정 제외
- 질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간병인·보호자 범위 확대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 포함)
-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의무 면제

2/6

보건복지부 2023. 5. 29 제작

**의료·관광 연계와
국가별 맞춤 전략으로
지역과 진료과목의
불균형을 개선합니다**

-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특화 모델 개발
- 주요 질환, 선호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해 국가별 전략 마련
- 성형·피부과,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분야 유치 확대로 진료분야 다양화

3/6

보건복지부 2023. 5. 29 제작

**유치기관 질 관리 및
사전상담·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유치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 평가·지정제 → 평가·인증제 변경으로 인증 유치기관 확대
-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사전상담과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4/6

보건복지부 2023. 5. 29 제작

**K-의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인지도를 높입니다**

- 메디컬코리아 국제 콘퍼런스* 개최 및 홍보
* 학술대회, 비즈니스 미팅, 홍보관, G2G 등 진행 (제13회, 2023.3.23.~24.)
-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한국 의료 콘텐츠 제공
- 의료 사각지대 국가 환자 대상 나눔의료 지원
- 외국 의료인 대상 온·오프라인 연수 프로그램 확대

5/6

보건복지부 2023. 5. 29 제작

정부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을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6/6

붙임 4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통계표)

* 실환자 기준 : 복수 진료와 방문을 포함하지 않고 환산한 실제 환자 수

◆ 2022년 외국인 환자 수 : 총 248,110명 (전년대비 70.1% 증가)

※ 유치 의료기관 등이 보고한 실적 기준 : 단순 코로나 검진, 상담, 비대면 대리처방 환자는 제외

1 전체 외국인 환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율
규모	60,201	81,789	122,297	159,464	211,218	266,501	296,889	364,189	321,574	378,967	497,464	117,069	145,842	248,110	7.7%

2 주요 국적별 외국인 환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율
미국	13,976	21,338	27,529	30,582	32,750	35,491	40,986	48,788	44,440	45,213	58,358	18,004	28,889	44,095	52.6
중국	4,725	12,789	19,222	32,503	56,075	79,481	99,059	127,648	99,837	118,310	162,868	31,084	28,021	43,923	56.8
일본	12,997	11,035	22,491	19,744	16,849	14,336	18,884	26,702	27,283	42,563	68,411	14,077	3,305	21,757	558.3
태국	133	290	417	721	899	1,211	2,286	3,933	6,137	8,998	14,162	6,047	7,287	20,408	180.1
베트남	327	921	1,336	2,231	2,988	3,728	5,316	8,746	7,447	7,532	15,133	5,586	10,829	14,665	35.4
몽골	850	1,860	3,266	8,407	12,034	12,803	12,522	14,798	13,872	14,042	17,918	6,102	9,145	14,148	54.7
러시아	1,758	5,098	9,650	16,438	24,026	31,829	20,856	25,533	24,859	27,185	29,897	6,246	6,412	9,616	50.0
카자흐 스탄	128	346	732	1,633	2,890	8,029	12,567	15,010	12,566	12,987	13,424	3,102	3,484	7,290	109.2
캐나다	984	1,714	2,051	2,756	2,770	2,943	3,206	4,123	3,966	4,098	4,996	1,127	2,333	4,718	102.2
필리핀	356	957	1,178	1,787	1,848	2,024	2,410	3,686	3,116	2,545	3,337	1,426	2,660	4,568	71.7
싱가 포르	168	329	468	728	1,211	1,490	1,652	2,452	2,544	2,566	2,971	354	521	3,772	624.0
우즈베 키스탄	113	298	491	824	1,358	1,904	2,634	4,103	3,253	3,915	4,194	1,585	2,039	3,345	64.1
기타	23,686	24,814	33,466	41,110	55,520	71,232	74,511	78,667	72,254	89,013	101,795	22,329	40,917	55,805	36.4
합계	60,201	81,789	122,297	159,464	211,218	266,501	296,889	364,189	321,574	378,967	497,464	117,069	145,842	248,110	70.1

3 진료과목별 외국인 환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율
내과 통합*	18,398	23,632	33,994	45,994	68,453	79,377	79,091	85,075	80,507	89,975	113,442	29,094	47,930	65,424	36.5
성형 외과	2,851	4,708	7,683	15,898	24,075	36,224	41,263	47,881	48,849	66,969	90,494	16,585	16,678	46,314	177.7
피부 과	6,015	9,579	12,830	17,224	25,101	29,945	31,900	47,340	43,327	63,671	85,194	15,409	11,979	36,060	201.0
검진 센터	8,980	13,286	19,496	23,898	28,135	35,858	34,284	39,743	39,156	41,230	54,185	4,848	18,369	19,260	4.9
정형 외과	3,196	4,975	6,759	9,643	14,597	19,211	22,468	24,121	22,730	23,864	26,068	7,582	8,994	11,434	27.1
치과	2,032	3,828	4,991	7,001	8,878	11,707	11,309	12,984	13,307	12,483	15,398	3,976	5,749	10,121	76.0
산부 인과	3,965	5,656	7,507	10,905	15,899	19,039	18,986	23,081	20,145	24,472	41,007	8,509	8,964	10,026	11.8
일반 외과	1,903	2,793	4,273	6,530	10,232	12,465	13,415	13,595	11,238	12,810	15,087	5,241	7,301	9,291	27.3
안과	1,921	4,507	5,760	7,933	9,421	14,618	11,230	12,335	11,402	10,938	13,149	4,312	6,692	8,414	25.7
이비 인후 과	2,484	3,549	4,965	7,313	10,069	11,860	11,275	10,980	10,436	10,340	12,555	3,227	3,918	6,908	76.3
소아 청소년 과	1,354	2,566	2,971	5,387	7,248	8,539	9,553	15,495	10,535	9,792	12,507	3,490	4,211	6,294	49.5
그 외 진료 과	11,365	22,513	43,587	49,333	58,201	76,546	85,719	92,750	86,250	97,908	111,780	32,389	40,696	63,804	56.8
합계	64,464	101,592	154,816	207,059	280,309	355,389	370,493	425,380	397,882	464,452	590,866	134,662	181,481	293,350	61.6

* 내과통합 : 일반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가정의학과(11개 진료과)

** 합계는 진료과목별 중복을 포함한 수치임

4 지역별 외국인 환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율
서울	36,896	50,490	77,858	99,422	133,428	154,816	165,689	216,657	202,248	245,463	320,284	66,507	72,575	146,310	101.6
경기	11,563	10,913	17,092	19,347	25,673	39,990	56,603	55,112	39,980	46,379	53,413	17,832	25,132	39,787	58.3
대구	2,816	4,493	5,494	7,117	7,298	9,871	12,988	21,100	21,867	17,745	31,183	5,280	11,350	13,909	22.5
부산	2,419	4,106	6,704	9,177	11,022	13,717	13,028	17,505	13,555	15,282	19,748	5,030	8,193	11,566	41.2
인천	4,400	2,898	4,004	6,370	10,432	17,701	16,153	12,992	14,572	17,760	24,864	5,279	8,570	7,905	△7.8
대전	169	1,693	1,963	5,371	5,476	7,047	8,096	10,897	8,584	7,831	9,296	1,339	2,198	4,345	97.7
울산	43	614	782	925	1,086	1,116	1,087	1,264	1,175	2,301	1,615	771	2,344	4,124	75.9
제주	223	720	740	1,752	2,952	5,236	4,552	6,666	4,947	7,506	14,114	3,472	2,266	4,117	81.7
경북	126	407	517	1,066	1,561	3,403	2,267	4,252	2,597	1,633	2,409	1,592	1,770	3,724	110.4
충남	5	997	1,367	1,715	2,936	2,965	3,552	2,164	1,440	2,909	3,746	1,522	2,783	3,497	25.7
전북	695	1,909	2,104	2,194	2,228	2,590	3,935	3,889	2,402	3,580	4,837	4,224	2,818	2,686	△4.7
광주	274	989	1,118	1,648	1,900	1,850	2,744	3,531	2,105	4,739	5,476	1,030	1,585	1,578	△0.4
충북	95	303	386	491	813	2,333	2,714	4,048	3,674	2,903	3,083	986	1,225	1,547	26.3
경남	122	354	556	646	749	965	1,180	1,400	1,183	781	1,864	1,302	1,626	1,371	△15.7
강원	279	567	1,349	1,498	2,925	2,523	1,699	2,401	1,110	1,723	1,030	597	714	1,086	52.1
전남	76	336	263	725	739	378	602	311	135	432	502	306	692	499	△27.9
세종	-	-	-	-	-	-	-	-	-	-	-	-	1	59	5800.0
합계	60,201	81,789	122,297	159,464	211,218	266,501	296,889	364,189	321,574	378,967	497,464	117,069	145,842	248,110	70.1

□ 방문 개요

- 일시/장소 : '23.5.30.(화) 16:00~17:30 / 조선대학교병원(광주 동구, 상종)
- 참석자
 -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최승현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
 - (광주시) 김용승 인공지능산업국장, 김기태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센터장
 - (조선대학교병원) 김경종 병원장, 임동훈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
 - (진흥원) 김영옥 기획이사, 이행신 국제의료전략단장
- 주요 내용 : 지역 유치 의료기관 방문 및 병원관계자 의견수렴

□ 조선대학교병원 개요

- 주요연혁
 - ('71.04월) 개원
 - ('11.12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 규모
 - 25개 진료과, 849병상 운영 중(의사 329명, 간호사 966명 등 1,399명 근무)
 - 외국인환자 유치
 - (유치실적) '18년 867명(110위) → '20년 58명(291위) → '22년 213명(218위)
 - (복지부와 협력 중인 사업) 지역특화 사업* 및 외국인 연수 지정기관
- * '23년 지역별 차별화된 유치모델 개발 지원(1.5억, 광주시+조선대병원)